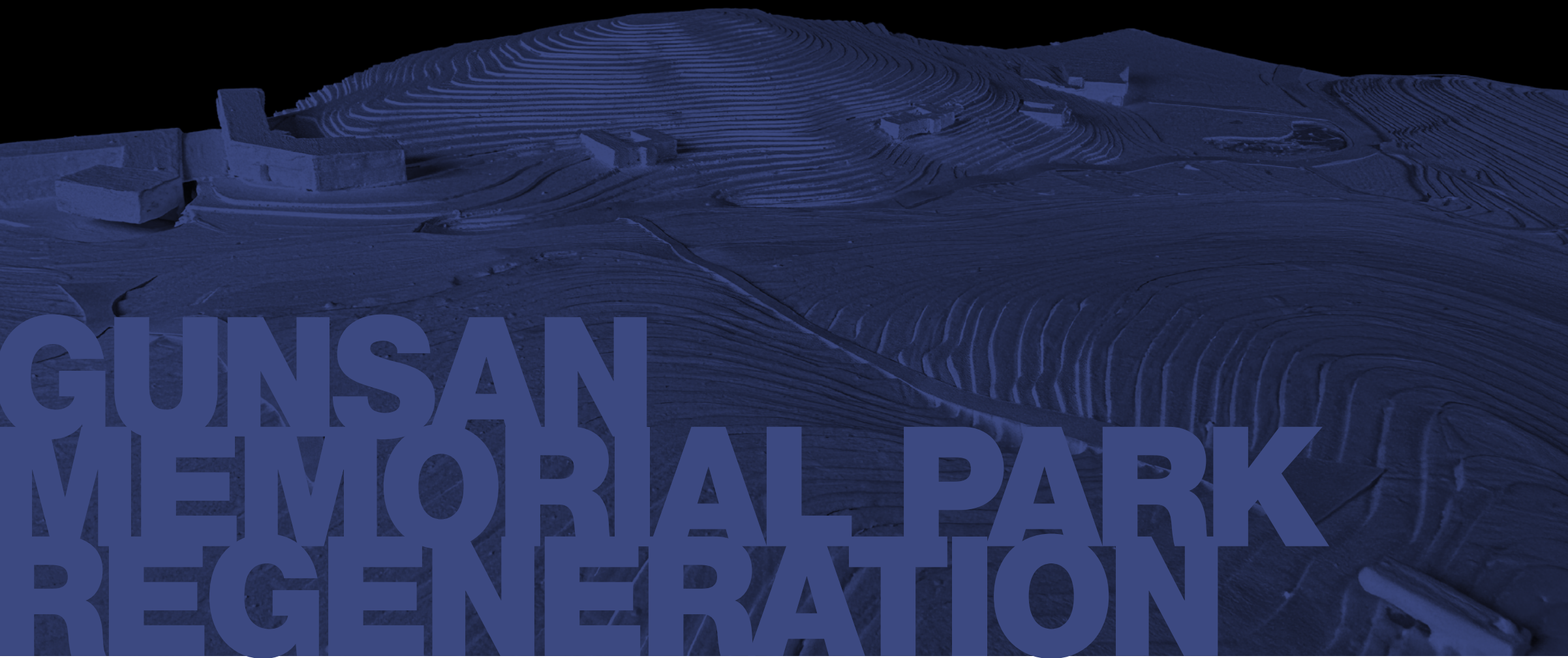


김다인 · 유동효 | **효다닥** 팀

군산 추모공원 재생 : 추모와 휴식의 공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진행과 화장물 증가에 따라 화장 및 추모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군산 송화원은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 확충의 한계,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재정비와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묘지 역시 추모공원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화장물 증가와 자연장 · 봉안 수요의 확대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장묘시설에서 벗어나 공원형 추모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군산 송화원의 재생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장묘시설을 기피시설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형 공공공간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ESIGN

설계



김다인 Kim Da in
학번 | 2300842
E-mail | dik542525@naver.com
H.P | 010-5425-4582



유동효 Yoo Dong Hyo
학번 | 2201405
E-mail | ydh010926@naver.com
H.P | 010-3757-9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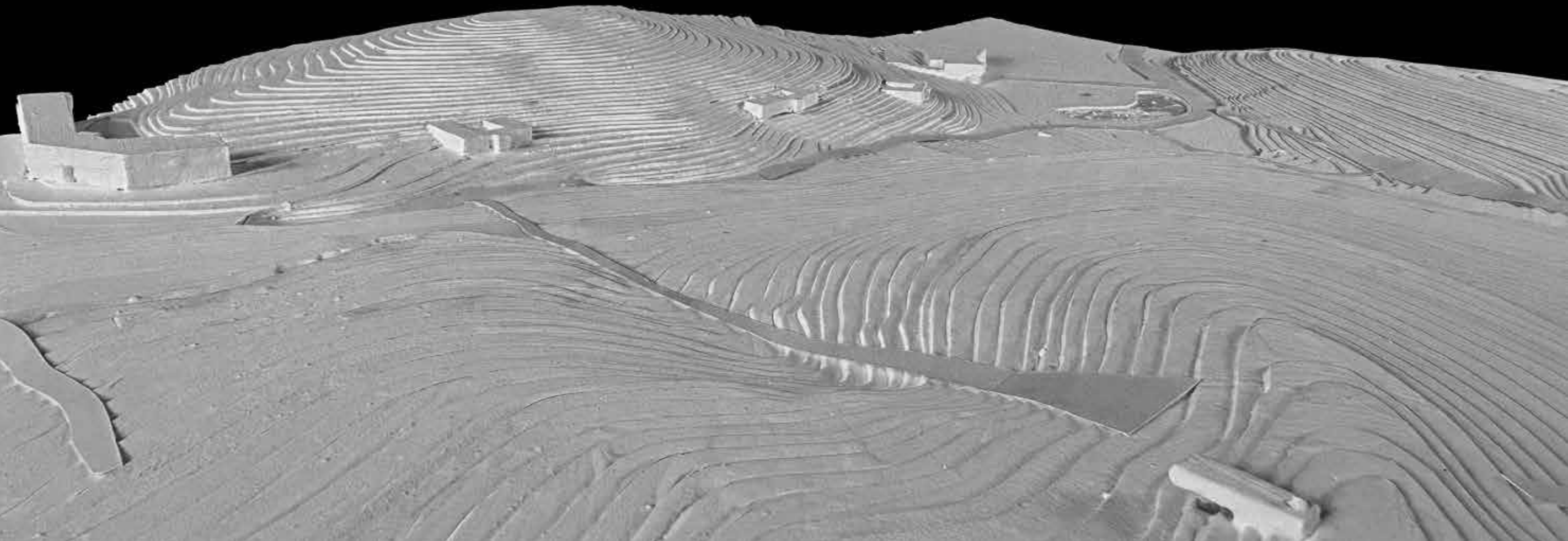
GUNSAN MEMORIAL PARK REGENERATION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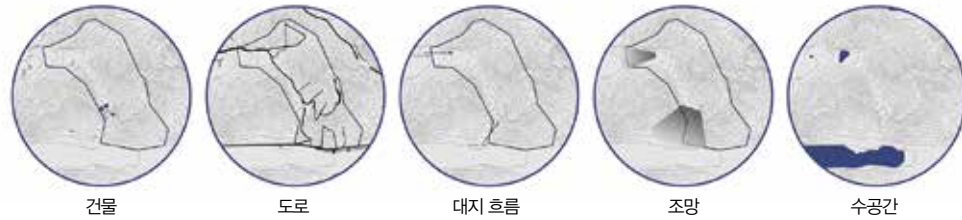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
 대지면적 | 약 250,000㎡
 건축면적 | 1761㎡(주추모관), 2507㎡(승화원), 754㎡(추모동)
 연 면 적 | 13,363㎡(주추모관), 3,610㎡(승화원), 754㎡(추모동)
 지역지구 | 농림지역, 공설묘지, 보전관리지역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80%



국내 승화원은 고령화와 화장률 증가로 화장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시설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에는 총 5개가 위치해 있으며, 각 승화원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중 군산 승화원은 시설의 노후화, 시급한 확충 문제, 주차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관련 기사들을 통해 볼 때, 현재 군산 승화원의 현대화 및 재생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지 분석



대지 주변에는 두 개의 마을이 위치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대지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주요 동선이 형성된다. 또한 남문과 북문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대지 내 산지는 조망 포인트를 제공하며, 주변 저수지와 어우러져 풍부한 수변 경관과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승화원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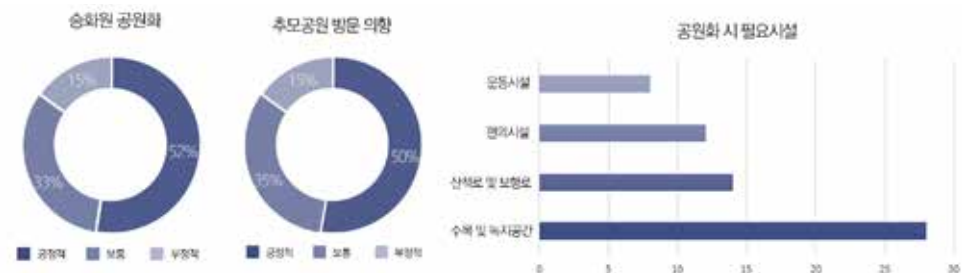


1984 매장중심 체계
2000 화장 도입 본격화 묘역 확장 문화
2010 추모관 과밀화 시작
2012 무분별한 증축 누적
2024 추모시설 과밀상태

1984~2000년에는 매장 중심으로 묘역이 확장되었으나, 2000년 이후 화장 문화의 확산으로 추모관이 증가하며 시설이 과밀화되었다. 장묘문화가 추모공원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장묘시설 역시 공원형 공공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간수요조사

설문기간 | 2026. 03. 17~03. 20
설문방법 | 오프라인
설문대상 | 군산시 시민 및 군산 승화원, 추모관 방문객(총 40명)



수목 및 녹지공간과 산책로·보행로에 대한 높은 수요, 승화원 공원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녹지와 보행 중심의 공간 구조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상과 추모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공원형 추모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맞춰 화장/봉안을 중심으로 공원, 산책, 휴식 기능을 결합한 복합 추모공간을 계획하여, 추모공원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공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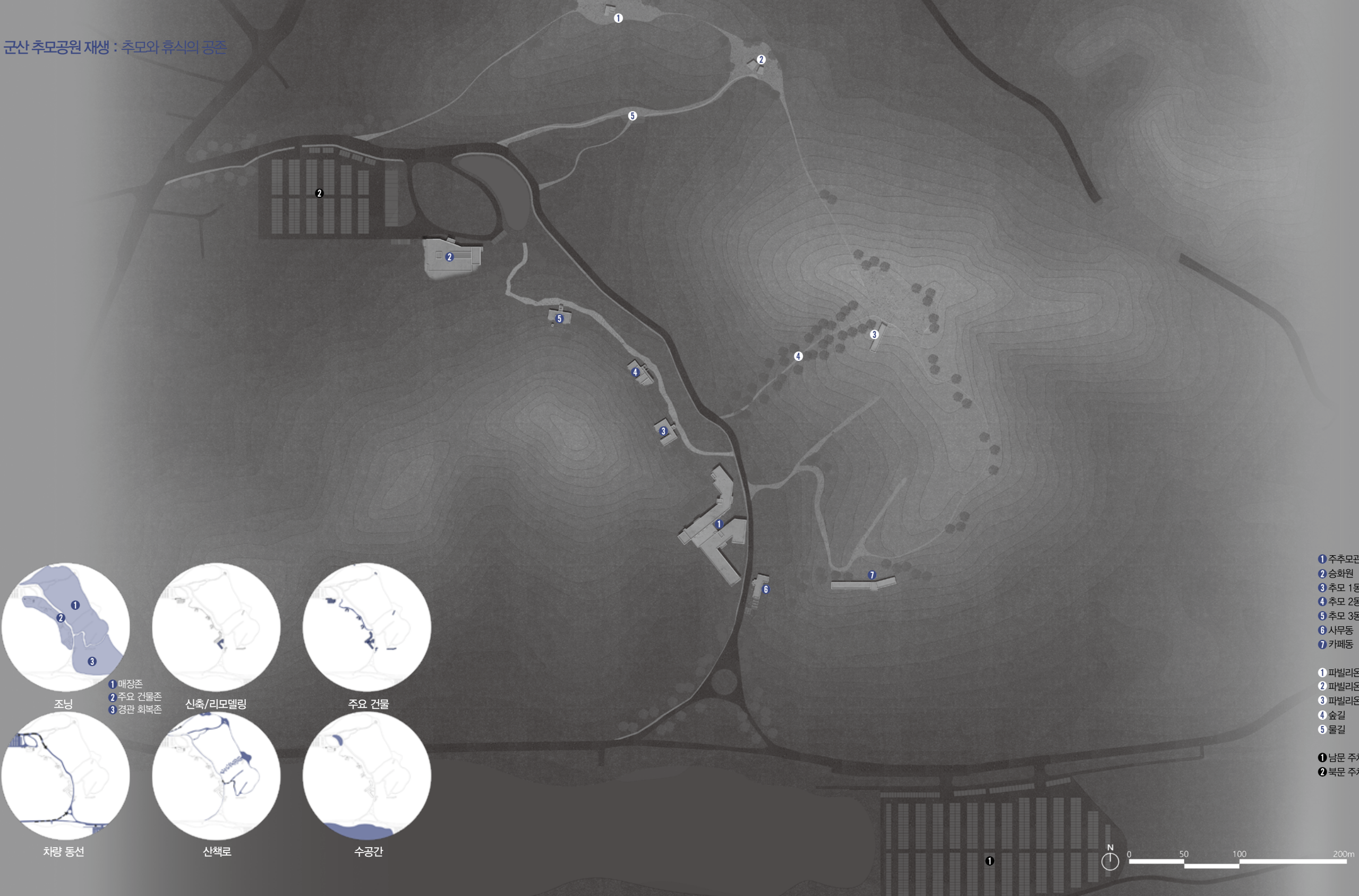
컨셉

安息
편안 (안) 실 (식)

사회적 이슈 + 인식 전환

도시 속 죽음의 경계를 허물어 추모를 일상으로 확장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

장묘시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와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폐쇄적이고 무거운 공간 이미지를 탈피하여, 일상 속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머무를 수 있는 공공적 공간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을 바탕으로 설정한 컨셉은 “안식”이다. 안식은 편안하게 쉰다는 의미로, 하나는 고인이 이곳에서 평온히 머무는 공간적 안식이며, 다른 하나는 방문객이 공원을 이용하며 일상 속에서 편안히 쉬는 정서적 안식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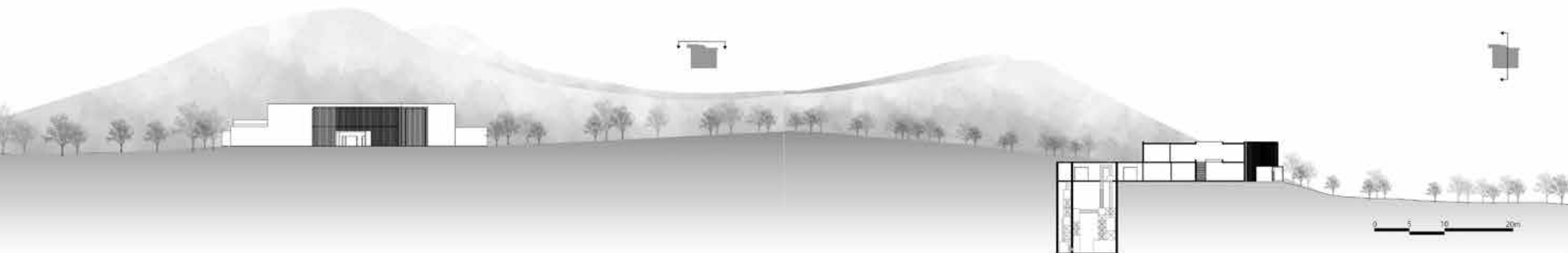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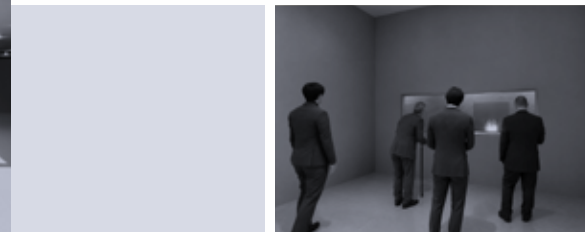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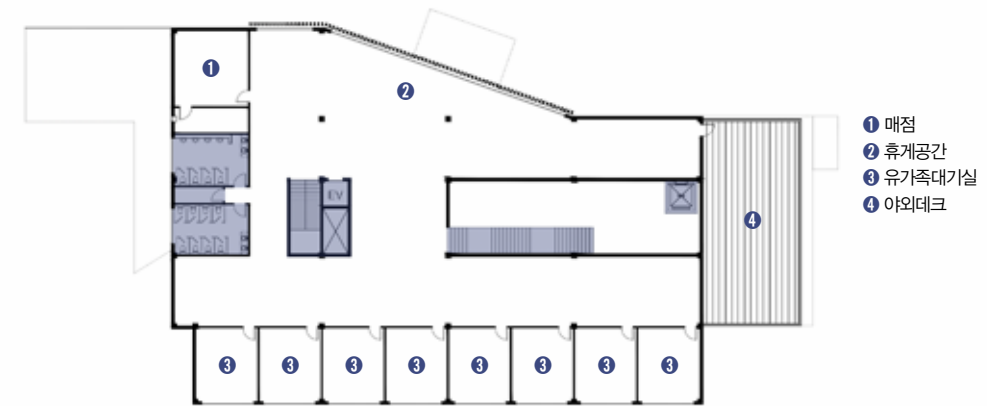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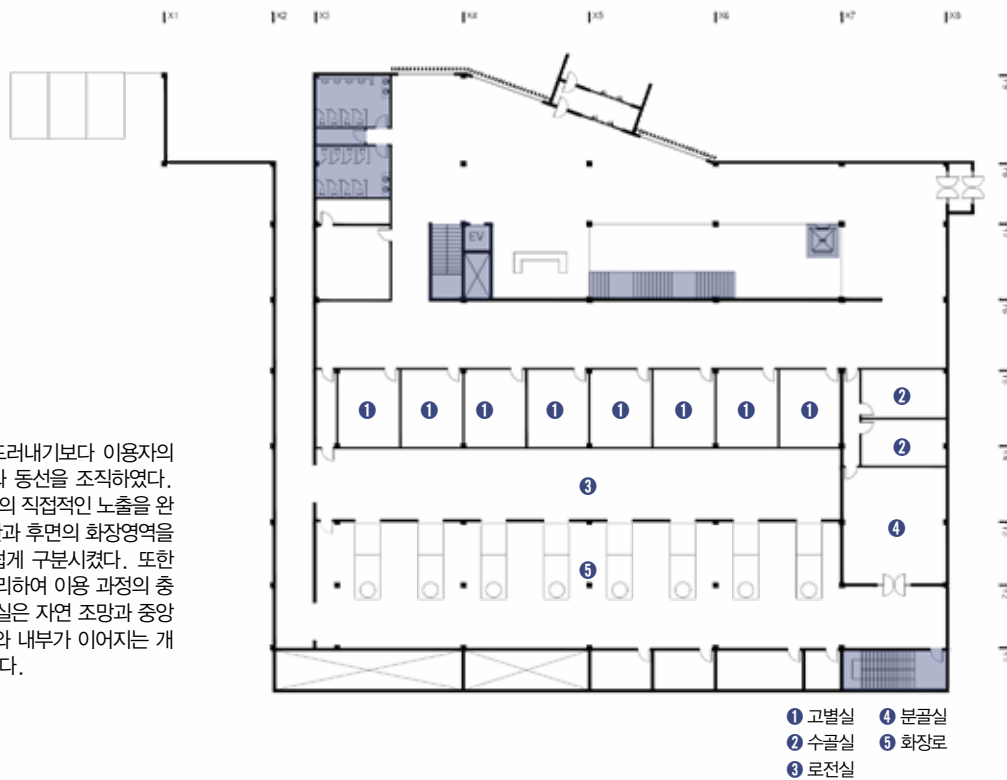


- 1 주추모관
- 2 승화원
- 3 추모 1동
- 4 추모 2동
- 5 추모 3동
- 6 사무동
- 7 카페동
- 1 파빌리온 1
- 2 파빌리온 2
- 3 파빌리온 3
- 4 숲길
- 5 물길
- 1 남문 주차장
- 2 북문 주차장

승화원 평면도

배움을 담은 승화원

승화원은 화장시설의 기능을 드러내기보다 이용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공간의 위계와 동선을 조직하였다. 사선형 외부 파사드는 화장시설의 직접적인 노출을 완화하며, 전면의 로비·편의공간과 후면의 화장영역을 분리해 시설의 성격을 자연스럽게 구분시켰다. 또한 직원·유가족·운구 동선을 분리하여 이용 과정의 충돌을 줄이고, 2층 유가족 대기실은 자연 조망과 중앙 홀의 시각적 연계를 통해 외부와 내부가 이어지는 개방적인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주추모관 평면도

재구성된 주추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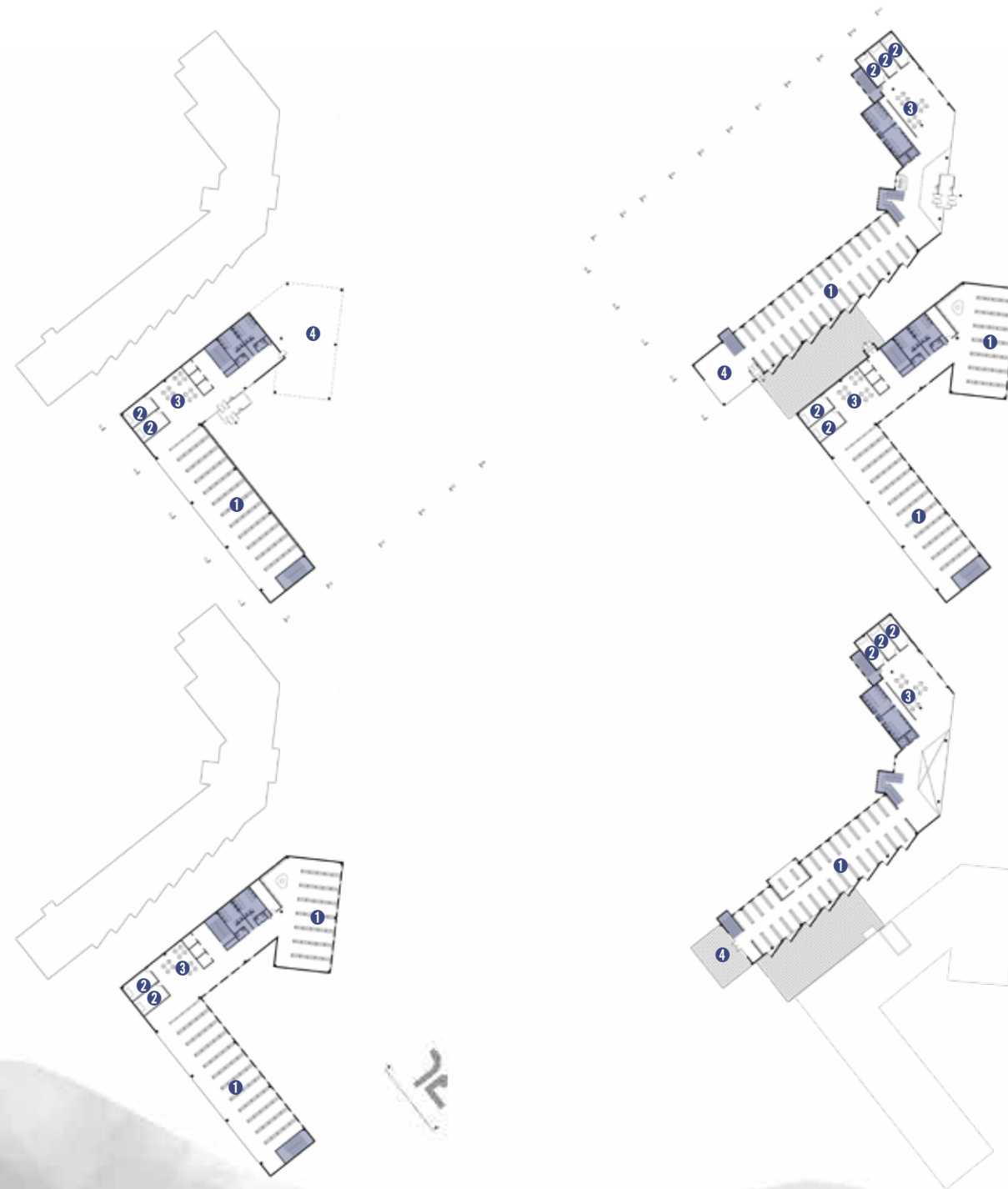
주추모관을 통합된 추모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추모 4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신축관과 유기적 연결을 이루었다. 기존 추모 4관의 1층 일부를 카트 보관소로 조성하고, 루버를 설치하여 추모공간의 시각적 노출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신축관은 추모와 휴식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전망공간을 계획하였다.



- ① 납골실
- ② 제례실
- ③ 유가족 휴게실
- ④ 카트 보관소



- ① 납골실
- ② 제례실
- ③ 유가족 휴게실



- ① 납골실
- ② 제례실
- ③ 유가족 휴게실
- ④ 전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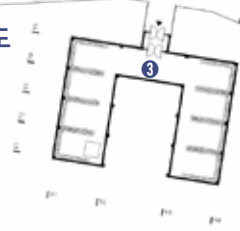


- ① 납골실
- ② 제례실
- ③ 유가족 휴게실
- ④ 전망테라스





추모동 평면도



추모의 길을 품은 추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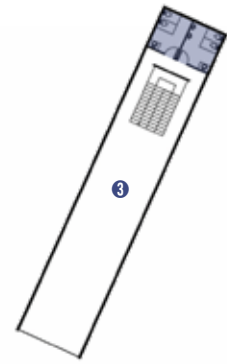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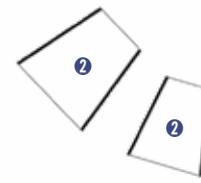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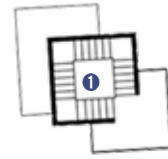
추모 1 · 2 · 3동은 세 개의 매스를 실외 추모관과 연계하여 계획하였으며, 지형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배치하였다. 각 동에는 중정을 조성하여 자연채광을 확보하고, 추모 공간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완화하였다. 또한 각 동이 서로 다른 공간 분위기와 경관을 갖도록하여 획일적인 납골당이 아닌 다양한 추모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세 개의 동은 실외 추모관 데크로 연결되며, 이동과정 자체가 하나의 추모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데크를 따라 조성된 추모길은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 ❶ 추모 1동
- ❷ 추모 2동
- ❸ 추모 3동
- ❹ 실외 추모 데크



0 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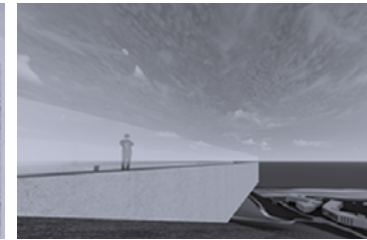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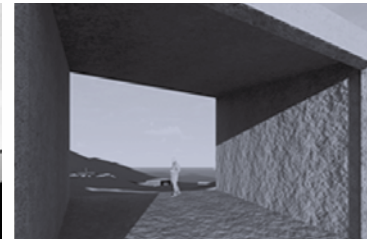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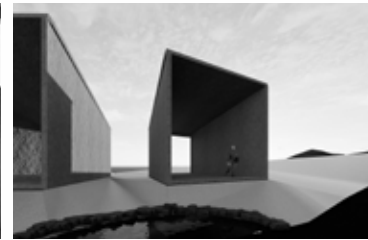
파빌리온 평면도



- ① 파빌리온 1
- ② 파빌리온 2
- ③ 파빌리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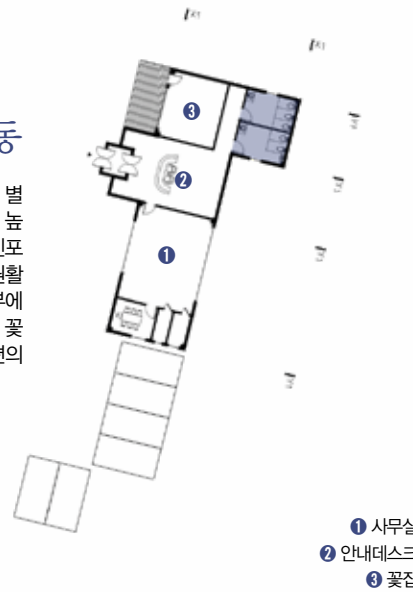
산책로를 걸으며 만나는 3개의 파빌리온

파빌리온은 총 3개로 구성하였으며,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는 이용객이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휴식 및 전망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첫 번째 파빌리온은 계단을 따라 이동하며 주변 경관을 조망하고, 중간의 휴게공간에서 잠시 머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두 번째 파빌리온은 산책로 중심부에 위치한 전망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세 번째 파빌리온은 가장 높은 등고에 배치하여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함과 동시에 내부에 화장실을 함께 계획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업무와 추모객 편의를 위한 독립형 사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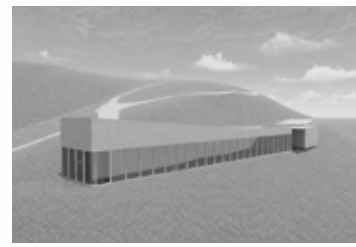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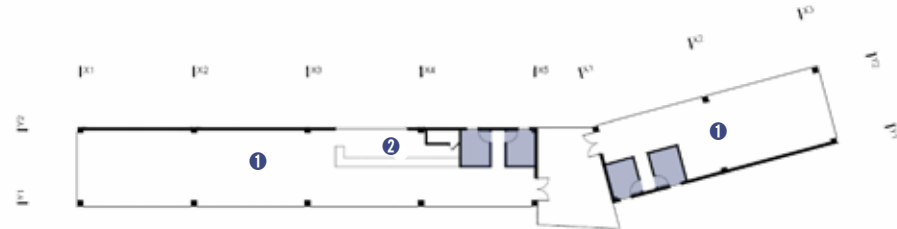
사무동은 기존 추모 4관 하부에 위치하던 사무 기능을 별도의 건물로 분리하여 업무와 방문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로비에는 안내 및 민원 업무를 위한 인포데스크를 배치하였으며, 사무실에서는 행정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사무동 내부에 꽃집을 배치하여 추모객들이 방문 전 필요한 헌화용 꽃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 ① 사무실
- ② 안내데스크
- ③ 꽃집

숲과 물, 두 풍경의 카페동

카페동은 기존 지형의 등고 흐름을 반영하여 공원과 산책로 이용객의 접근성을 고려해 출입구를 배치하였다. 두 개의 건물은 서로 다른 경관을 향하도록하여 각기 다른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좌측 건물은 전면의 수공간을 향해 창을 배치하여 개방적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측 건물은 숲을 향해 창을 배치하여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차분한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카페 공간에서도 다양한 풍경과 휴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① 카페라운지
- ② 조리실